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 남
(한서대학교)

한 정 란*
(한서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중년기 여성 328명(취업여성 200명, 비취업여성 128명)을 대상으로 Hornstein & Wapner(1985)의 네 가지 은퇴기대 유형과 경제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둘째,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은퇴를 '휴식',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그러나 '삶의 연속'에 대한 기대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취업여성은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노후준비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여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노후준비 순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경제적·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를 더 잘 하고 있는 반면, 신체적 노후준비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은퇴를 '휴식'이나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 등 삶에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이나 계기로 기대하는 경향이 높은 집단에서 취업자와 고학력자, 고소득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노후준비도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년기 여성들이 은퇴를 앞두고 체계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은퇴준비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은 비취업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지원을 제언하였다.

주요용어: 은퇴, 은퇴기대, 노후준비, 중년기 여성

이 논문은 2012년도 한서대학교 교내 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한정란, 한서대학교(hjr@hanseo.ac.kr)

■ 투고일: 2014.7.28 ■ 수정일: 2014.9.3 ■ 게재확정일: 2014.9.19

I. 연구의 필요성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문제는 몇몇 개인이나 가족에 한정된 문제를 넘어 범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정부에서 나서서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 2차에 걸친 ‘새로마지플랜’을 비롯하여 단계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길어진 노후 대비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노년기에 대한 준비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경로효친 사상을 중시하던 과거와는 달리,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노인에 대한 전통적 부양체계 및 부양의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조추용, 2004) 이제 는 그야말로 ‘나홀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2012년 현재 한국인의 남녀 평균수명(남성 77.95세, 여성 84.64세) 차이는 약 7년으로 특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긴 노후를 보내야 한다(통계청, 2012)는 점에서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에게 노후준비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독립적인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비취업여성의 노후준비는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여성들의 노후에 대한 인식과 주체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오경숙, 2013), 아직 까지 여성의 노후준비를 지원할 학술적 연구결과들은 크게 부족한 상태다. 또한 그나마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몇 안 되는 연구들은 무배우자 여성(나지나 외, 2010), 특정 전문직 여성(성미애·옥선화, 2004), 전업주부(우해봉, 2010) 등 특별한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취업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박경미, 2013; 안현선 외, 2009; 이여봉, 2012)들이었다. 그 밖에 중년기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노후 인식이나 노후대책, 삶의 만족도를 비교 조사한 연구는 조혜영(2004)과 김여진과 흥환(2009), 공선희(2010)의 연구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가 비단 남성이나 취업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년기 진입을 앞둔 모든 이들이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 중요한 생애사건이자 과정이며,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비취업여성에게 있어 더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었던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수준을 비교하고 중년기 여성들의 은퇴기대에 따른 노후준비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들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정책과 교육 등 구체적인 서비스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은퇴기대

과거에는 은퇴를 주로 연령, 직업지위의 상실, 연금의 수혜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들로써 정의해왔다(김주희 외, 2009).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연장된 생애주기 속에서 개인의 삶이 훨씬 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은퇴에 대한 객관적 지표보다도 주관적인 평가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은퇴의 시기와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은퇴를 직업활동 유무와 무관하게 인생 후기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중요한 생애사건이자 과정으로 보는, 즉 인생의 후기단계로 들어감을 알리는 이정표적 사건 혹은 그 진입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장은정,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은퇴는 노년으로 이동해가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생애사건이자 과정(김나연 외, 2007)으로서 성별이나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은퇴의 정의에서 개인의 수용이 중요하듯 은퇴에 대한 개인의 태도 또한 은퇴 연구에서 중요하다. Hornstein & Wapner(1985)는 은퇴 경험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은퇴에 관한 이원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은퇴기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Hanson & Wapner(1994)에 의해 다음 네 가지의 은퇴기대 유형으로 확립되었다. 첫째, 은퇴를 사회로부터 물러나 편안히 쉬는 휴식이자 노년기로의 전환으로 보는 '휴식(Transition to Old Age)'의 관점이다. 둘째, 은퇴를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표를 조정하여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New Beginning)'로 보는 관점이다. 셋째, 그 이전의 삶과 거의 변화가 없이 지속적인 삶으로 보는 '삶의 연속(Continuation)'의 관점이다. 넷째, 은퇴를 외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물러나 삶의 희망과 목표를 상실하는 '강요된 좌절(Imposed Disruption)'로 보는 관점이다. 이들의 은퇴기대 유형화는 이후 은퇴 및 노후관련 연구에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강경수, 2005; 배문조, 2007; 오병철, 2012; 한정란 외, 2010; Gee & Baillie, 1999). 그 결과, Gee & Baillie(1999), 배문조(2007), 오병철(2012)에서는 '새로운 출발'로서의 은퇴기대가 가장 높게 나온 반면, 여성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경수(2005)에서는 '휴식'으로서의 은퇴기대가 가장 높았다.

한편, 취업여부에 따른 여성의 은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비취업여성은 은퇴를 의미 있게 인식하지 못하는 반면, 취업여성에게 은퇴는 그동안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취미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계발의 시기로서 은퇴 후 노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성미애·옥선화, 2004; Gigy, 1985; Ogunbameru, 2004; Settersten, 1998). 또한, 취업여성의 경우 은퇴 전후의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반면, 비취업여성의 경우에는 그 변화의 크기가 더 작다. 따라서 비취업여성의 경우 취업여성보다 은퇴를 ‘삶의 연속’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큰 반면, 취업여성은 비취업여성보다 은퇴를 ‘휴식’이나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로 인식할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2. 노후준비

노후준비는 각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계획하거나 실천하고 있는 준비행동으로, 영역에 따라 경제적 준비, 신체적 준비, 사회적 준비, 정서적 준비 등으로 분류된다(김양이·이채우, 2008; 김인숙, 2004; 배문조, 2011; 성말순, 2004; 전귀연·배문조, 2010; 조혜영, 2004).

가. 경제적 노후준비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노후준비 중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경제적 준비다(박주선, 2007; 박효영, 2009; 이연호, 2007; 조추용 외, 2009).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간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비교한 조혜영(2004)의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의 시작 연령을 더 낮게 인식하고, 실제 경제적 노후준비 실천의 시작도 비취업여성이 취업여성에 비해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후에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로서 비취업여성은 경제를, 취업여성들은 신체건강을 꼽았다. 이는 전업주부의 경제적 노후준비 취약성을 반증하는 결과로, 30~40대 부부의 노후준비도를 조사한 이영주(2010)의 연구에서도 남편이 아내보다 경제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으며, 아내의 경우 전업주부보다 취업여성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신체적 노후준비

여러 선행 연구들이 건강을 노후문제의 중요한 화두로 다루었다(고정옥·김정숙, 2009; 김수현, 2009; 김인숙, 2004; 배계희, 1988; 배재덕, 2014; 성말순, 2004; 이지은, 2000; 조혜영, 2004). 남녀 간의 신체적 노후준비를 비교한 일부 연구들(고정옥·김정숙, 2009; 김양이·이채우, 2008; 이정화, 2009; 조추용 외 2009)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노후준비수준이 높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남성이 직장 내 정기적 건강검진을 통해 여성보다 신체적 노후준비 및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연구들(김수현, 2009; 이정화, 2009; 조미영, 2006)도 있는가 하면, 남녀 간에 신체적 노후준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배계희, 1988)도 있다.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신체적 노후준비 비교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이 사회활동으로 인한 과음과 흡연율이 많아 전업주부보다 건강관리에 취약하며(강영숙, 2005), 취업여성들은 저축, 보험 등으로 신체적 노후준비를 대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전업주부들은 운동이나 규칙적인 생활습관 등의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영, 2004).

다. 사회적 노후준비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인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지지망을 들 수 있다. 은퇴를 경험하면서 대인관계 폭이 줄어들고, 역할상실 및 변화에 따른 재적응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김윤정 외, 2004; 조성남, 2004). 따라서 중년기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 사회적 노후준비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김백수·이정화, 2010). 김양이 외(2008)에서는 배우자가 있고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2010)에서는 아내에 비해 남편의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이 더 높았으나, 아내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라. 정서적 노후준비

노년기의 정서적 건강상태는 노년기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노년기

는 생리적 감퇴, 질병, 사회적 역할 상실, 배우자나 친구의 사망, 자녀의 독립 등 심리적 부담이 큰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노년기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이영주, 2010).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서적 노후준비에 있어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여가 취미활동을 가장 많이 선택하며(김수현, 2009; 김정임, 2009; 이소정, 2009), 특히 취업여성들은 적극적인 취미활동과 재취업을 선호하는 반면 전업주부들은 종교적 행사나 사회봉사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영, 2004). 반면, 이영주(2010)에서는 남편과 아내 간에 정서적 노후준비도에 차이가 없었으며,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3.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간의 관계

은퇴 후 삶에 대하여 개인이 어떤 기대를 갖는가는 그의 노후준비 수준이나 목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은퇴기대와 노후준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김나연 외, 2007; 김희정, 2010; 배문조, 2011; 이영주, 2010; 전귀연·배문조, 2010)은 노후나 은퇴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따라 실제 노후준비 행동도 달라지고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간에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은퇴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노후준비를 더 잘 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 나아가 긍정적인 은퇴기대는 노후 삶의 안정 뿐 아니라 현재 삶에 대한 만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현선 외(2009)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은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 중년 여성일수록 현재의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홍석태와 양해술(2008)의 연구에서 은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노후준비 교육 효과가 높아 긍정적인 은퇴기대가 적극적인 노후준비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은퇴기대를 긍정성 정도를 나타내는 단일 차원으로 가정하고 은퇴기대의 긍정성 정도와 노후준비 정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며, 본 연구에서처럼 은퇴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기대수준을 반영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출발, 휴식, 삶의 계속, 강요된 좌절 등 은퇴에 대한 개인들의 다양한 기대와 노후준비 간의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절차 및 조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0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4주에 걸쳐 대상자가 설문지를 직접 읽고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중년기의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에 대한 유의표집을 위하여 무선표집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가 접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산, 당진, 홍성 등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40세 이상 59세 이하의 중년 기 여성으로 한정하여 눈덩이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3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37 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9부를 제외한 후 328부의 설문 지를 최종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특 성	구 분	N	%	M(SD)
연 령 (N=328)	40대	232	70.7	46.65 (5.37)
	50대	96	29.3	
종 교 (N=328)	없음	122	37.2	
	개신교	83	25.3	
	천주교	69	21.0	
	불교	47	14.3	
	기타	7	2.1	
학 령 (N=328)	초졸	14	4.3	
	중졸	36	11.0	
	고졸	181	55.2	
	대졸이상	97	29.6	
결 혼 (N=328)	미혼	7	2.1	
	기혼	302	92.1	
	이혼/사별	19	5.8	

특 성	구 분	N	%	M(SD)
본인 소득 (N=328)	없음	123	37.5	113.90 (125.60)
	100만 원 이하	66	20.1	
	100만원초과 200만 원 이하	91	27.7	
	200만원 초과	48	14.6	
남편 소득 (N=328)	없음	35	10.7	258.74 (156.52)
	150만 원 이하	49	14.9	
	150만원 초과 250만 원 이하	92	28.0	
	250만원 초과 350만 원 이하	72	22.0	
	350만원 초과	80	24.4	
가족형태 (N=328)	핵가족	269	82.0	
	확대가족	43	13.1	
	독신(혼자 삶)	16	4.9	
자녀수 (N=328)	없음	10	3.0	2.09 (.86)
	1명	43	13.1	
	2명	206	62.8	
	3명	51	15.5	
	4명 이상	18	5.6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기본 질문들 외에 노후준비 수준에 대해 기존 연구들(강경립, 2004; 백영의, 2007; 성말순, 2004; 이복희, 2006)의 설문지를 토대로 관련 분야 전문가 3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토받아 구성하였다. 노후준비 척도는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하여 '나는 노후에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풍요롭게 생활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를 비롯하여 정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하여도 각각 한 문항씩 총 네 문항을 구성하였다. 또 은퇴기대 유형은 Hanson & Wapner(1994), Gee & Baillie(1999), 강경수(2005) 등을 참고하여

Hornstein & Wapner(1985)의 새로운 출발(은퇴는 그동안 계획했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다 등), 휴식(은퇴는 생활의 여유를 즐기며 편안히 쉬는 시간이다 등), 강요된 좌절(은퇴 후의 삶은 내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 등), 삶의 연속(은퇴 후에도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 것이다 등) 등 네 가지 은퇴기대 각각에 대해 두 개 문항씩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내용타당도는 관련 분야 전문가 3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으며, 각 은퇴기대 영역이 두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별도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값은 구하지 않았다.

은퇴기대와 노후준비에 관한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거나 은퇴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코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5.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t-Test, 교차분석, One-way ANOVA, 군집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은퇴기대 수준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각 은퇴기대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중년기 여성 모두 은퇴기대 중 '강요된 좌절'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으나, 취업여성은 '휴식', '새로운 출발', '삶의 연속'의 순인 반면, 비취업여성은 '휴식', '삶의 연속', '새로운 출발'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중년기 여성들이 은퇴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직까지 은퇴 이후 노후복지 제도나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함으로써, 중년기 여성들에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2.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 비교

구분		취업여성(N=200)	비취업여성(N=128)	t
		M(SD)	M(SD)	
은퇴 기대	휴식	3.44(.81)	3.22(.76)	-2.52*
	새로운 출발	3.36(.80)	3.09(.74)	-3.05**
	삶의 연속	3.13(.91)	3.15(.78)	.22
	강요된 좌절	4.08(.68)	3.78(.65)	-3.96***
	평균	3.62(.56)	3.36(.53)	-4.25***

* p<.05, ** p<.01, *** p<.001

취업여부에 따른 은퇴기대를 t-Test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는 취업여성의 ‘휴식’,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에 대한 은퇴기대가 비취업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연속’ 은퇴기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성의 경우 은퇴 전과 후 생활의 차이가 비취업여성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은퇴를 현재와는 다른 삶의 변화가 있는 시기 즉, ‘휴식’이나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 등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비록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삶의 연속’에서만 비취업여성들의 은퇴 기대가 취업여성들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 또한 비취업여성은 은퇴 전후의 삶에 커다란 차이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2. 노후준비 수준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노후준비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두 집단의 노후준비 수준을 살펴보면, 취업여성은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 사회적 준비, 신체적 준비 순으로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취업여성은 신체적 준비, 정서적 준비, 사회적 준비, 경제적 준비의 순으로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노후준비 수준 비교

구 분	경제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계	
	M (SD)	t	M (SD)	t	M (SD)	t	M (SD)	t	M (SD)	t
취업 여성 (N=200)	3.39 (.86)	3.35***	3.38 (.79)	2.37*	3.24 (.96)	-.88	3.33 (.82)	2.60**	13.33 (2.67)	-2.30
비취업 여성 (N=128)	3.06 (.88)		3.16 (.82)		3.33 (.89)		3.09 (.81)		12.64 (2.64)	

* p<.05, ** p<.01, *** p<.001

두 집단의 노후준비 수준 비교에서는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신체적 노후준비를 제외한 모든 영역 즉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노후준비 모두 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취업여성에 비하여 취업여성은 경제적 능력과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노후준비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특히 비취업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다른 영역의 노후준비에 비해 취약한 것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고 독립적인 경제력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은퇴기대 수준별 비교

은퇴기대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한 네 가지 은퇴기대 수준에 대하여 은퇴기대 점수가 4 이상인 집단을 '상', 3인 집단을 '중', 2 이하인 집단을 '하'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 집단 간에 취업여부와 개인적 특성, 노후준비의 차이를 교차분석과 One-way ANOVA 및 Duncan's test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퇴를 '휴식'으로 기대하는 수준에 따른 하위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즉, 본인 월소득과 경제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집단은 본인 월소득 200만원 초과와 고소득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고 무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중집단은 소득이 적거나 없는 비율이 높고, 하집단은 고소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경제적·정서적 노후준비도는 '휴식' 은퇴기대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노후준비도는 '휴식' 은퇴기대 상과

중 집단이 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노후준비도는 '휴식' 은퇴기대 상집단이 중이나 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 휴식에 대한 은퇴기대 수준에 따른 개인적 특성, 노후준비 비교

< N=328 >

구 분		휴식에 대한 은퇴기대 수준 N(%)		
		상(n=127)	중(n=130)	하(n=71)
취업여부	비 취업	40(31.5)	57(43.8)	31(43.7)
	취업	87(68.5)	73(56.2)	40(56.3)
	x2	4.94		
연령	40대	87(68.5)	96(73.8)	49(69.0)
	50대	40(31.5)	34(26.2)	22(31.0)
	x2	1.02		
교육수준	초졸	5(3.9)	7(5.4)	2(2.8)
	중졸	12(9.4)	11(8.5)	13(18.3)
	고졸	66(52.0)	76(58.5)	39(54.9)
	대졸 이상	44(34.6)	36(27.7)	17(23.9)
	x2	7.77		
본인 월소득	없음	37(29.1)	58(44.6)	28(39.4)
	100만 원 이하	23(18.1)	29(22.3)	14(19.7)
	101~200만 원	38(29.9)	29(22.3)	24(33.8)
	200만원 초과	29(22.8)	14(10.8)	5(7.0)
	x2	17.27**		
배우자 월소득	없음	9(7.1)	16(12.3)	10(14.1)
	150만 원 이하	19(15.0)	20(15.4)	10(14.1)
	151~250만 원	45(35.4)	27(20.8)	20(28.2)

구 분		휴식에 대한 은퇴기대 수준 N(%)		
		상(n=127)	중(n=130)	하(n=71)
배우자 월소득	251~350만원	21(16.5)	33(25.4)	18(25.4)
	350만원 초과	33(26)	34(26.2)	13(18.3)
	x2	11.75		
경제적 노후준비	M(SD)	3.56(0.80)	3.17(0.88)	2.9(0.83)
	F	15.24***		
	Duncan	a	b	c
정서적 노후준비	M(SD)	3.57(0.76)	3.25(0.73)	2.89(0.85)
	F	18.04***		
	Duncan	a	b	c
신체적 노후준비	M(SD)	3.48(0.92)	3.30(0.83)	2.85(1.01)
	F	11.32***		
	Duncan	a	a	b
사회적 노후준비	M(SD)	3.46(0.77)	3.16(0.82)	2.96(0.82)
	F	9.69***		
	Duncan	a	b	b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새로운 출발' 은퇴기대 수준별 하위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이 취업여부, 교육수준, 본인 월소득, 경제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자 비율은 '새로운 출발' 은퇴기대 상집단이 높고 하집단이 낮았으며,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율 역시 상집단이 높고 하집단이 낮았다. 또 본인 월소득에서 200만원 초과 고소득자 비율은 상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하집단은 낮았다. 경제적·신체적 노후준비도는 상집단과 중집단이 하집단보다 높았고, 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도는 상, 중, 하 집단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5.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은퇴기대 수준에 따른 개인적 특성, 노후준비 비교

< N=328 >

구 분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은퇴기대 수준 N(%)		
		상(n=111)	중(n=135)	하(n=82)
취업여부	비 취업	31(27.9)	54(40.0)	43(52.4)
	취업	80(72.1)	81(60.0)	39(47.6)
	x2	12.00**		
연령	40대	76(68.5)	97(71.9)	59(72.0)
	50대	35(31.5)	38(28.1)	23(28.0)
	x2	0.42		
교육수준	초졸	3(2.7)	4(3.0)	7(8.5)
	중졸	11(9.9)	11(8.1)	14(17.1)
	고졸	54(48.6)	81(60.0)	46(56.1)
	대졸 이상	43(38.7)	39(28.9)	15(18.3)
	x2	16.69**		
본인 월소득	없음	29(26.1)	54(40)	40(48.8)
	100만 원 이하	20(18)	33(24.4)	13(15.9)
	101~200만 원	39(35.1)	29(21.5)	23(28)
	200만원 초과	23(20.7)	19(14.1)	6(7.3)
	x2	19.01**		
배우자 월소득	없음	8(7.2)	13(9.6)	14(17.1)
	150만 원 이하	13(11.7)	24(17.8)	12(14.6)
	151~250만 원	28(25.2)	40(29.6)	24(29.3)
	251~350만원	27(24.3)	28(20.7)	17(20.7)
	350만원 초과	35(31.5)	30(22.2)	15(18.3)
	x2	10.78		

구 분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은퇴기대 수준 N(%)		
		상(n=111)	중(n=135)	하(n=82)
경제적 노후준비	M(SD)	3.68(0.77)	3.13(0.80)	2.91(0.92)
	F	23.89***		
	Duncan	a	a	b
정서적 노후준비	M(SD)	3.65(0.67)	3.21(0.81)	2.96(0.81)
	F	20.43***		
	Duncan	a	b	c
신체적 노후준비	M(SD)	3.50(0.85)	3.20(0.94)	3.09(0.98)
	F	5.36**		
	Duncan	a	a	b
사회적 노후준비	M(SD)	3.50(0.71)	3.23(0.81)	2.88(0.85)
	F	14.44***		
	Duncan	a	b	c

* p<.05, ** p<.01, *** p<.001

한편, '삶의 연속' 은퇴기대 수준별 하위집단 간에는 어떤 변수에서도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수준에 따른 하위집단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이 취업여부, 연령, 교육수준, 본인 월소득, 배우자 월소득, 경제적 노후준비, 정서적 노후준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자 비율은 '강요된 좌절' 은퇴기대 상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하집단에서 낮았다. 이는 <표 2>에서 비취업여성에 비해 취업여성의 '강요된 좌절' 은퇴 기대가 높게 나타났던 결과로부터도 유추될 수 있다. 상집단은 40대가 많고 하집단은 5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대졸이상 고학력자 비율은 상집단에서 높고 하집단에서 낮았으며, 본인 월소득에서 200만원 초과 고소득자 비율은 상집단이 높고 하집단이 낮고, 배우자 월소득이 350만원 초과 비율은 중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도는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높고, 정서적 노후준비도는 상집단이 중이나 하집단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이 높은 이들일수록 은퇴를 도전과 위기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후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노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여성들이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정도가 더 높아 취업여성들의 높은 노후준비도를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표 6. 강요된 좌절에 대한 은퇴기대 수준에 따른 개인적 특성, 노후준비 비교

< N=328 >

구 분		강요된 좌절에 대한 은퇴기대 수준 N(%)		
		상(n=87)	중(n=151)	하(n=90)
취업여부	비취업	18(20.7)	63(41.7)	47(52.2)
	취업	69(79.3)	88(58.3)	43(47.8)
	x2	19.34**		
연령	40대	71(81.6)	107(70.9)	54(60.0)
	50대	16(18.4)	44(29.1)	36(40.0)
	x2	9.98**		
교육수준	초졸	1(1.1)	7(4.6)	6(6.7)
	중졸	2(2.3)	12(7.9)	22(24.4)
	고졸	39(44.8)	93(61.6)	49(54.4)
	대졸 이상	45(51.7)	39(25.8)	13(14.4)
	x2	50.29***		
본인 월소득	없음	18(20.7)	62(41.1)	43(47.8)
	100만 원 이하	13(14.9)	31(20.5)	22(24.4)
	101~200만 원	29(33.3)	43(28.5)	19(21.1)
	200만원 초과	27(31.0)	15(9.9)	6(6.7)
	x2	36.22***		
배우자 월소득	없음	6(6.9)	14(9.3)	15(16.7)
	150만 원 이하	9(10.3)	20(13.2)	20(22.2)

구 분		강요된 좌절에 대한 은퇴기대 수준 N(%)		
		상(n=87)	중(n=151)	하(n=90)
배우자 월소득	151~250만 원	25(28.7)	40(26.5)	27(30.0)
	251~350만원	23(26.4)	30(19.9)	19(21.1)
	350만원 초과	24(27.6)	47(31.1)	9(10.0)
	x2	21.39**		
경제적 노후준비	M(SD)	3.56(0.77)	3.25(0.86)	2.99(0.92)
	F	10.03***		
	Duncan	a	b	c
정서적 노후준비	M(SD)	3.51(0.79)	3.30(0.74)	3.08(0.89)
	F	6.40*		
	Duncan	a	b	b
신체적 노후준비	M(SD)	3.14(0.99)	3.36(0.86)	3.24(0.99)
	F	1.68		
	Duncan			
사회적 노후준비	M(SD)	3.36(0.81)	3.22(0.81)	3.13(0.85)
	F	1.68		
	Duncan			

* p<.05, ** p<.01, *** 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체로 취업여성이고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으며, 은퇴를 '삶의 연속'보다는 '휴식'이나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 등 삶에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는 사건이나 계기로 기대하는 경향이 높은 경우 대체로 노후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제언

이상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Hornstein & Wapner(1985)가 구성한 네 가지 은퇴기대(휴식, 새로운 출발, 삶의 연속, 강요된 좌절)에 대해서 조사대상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모두 은퇴를 '강요

된 좌절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으나, 취업여성은 ‘휴식’, ‘새로운 출발’, ‘삶의 연속’의 순인 반면, 비취업여성은 ‘휴식’, ‘삶의 연속’, ‘새로운 출발’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들이 은퇴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직까지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복지 제도나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함으로써 중년기 여성들에게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출발’로서 은퇴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Gee & Baillie(1999), 배문조(2007), 오병철(2012)의 결과나 ‘휴식’으로서의 은퇴기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강경수(2005)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 이유는 조사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선행연구들은 조사대상이 모두 직장 남성이었거나(오병철, 2012) 남녀 직장인이었거나(Gee & Baillie, 1999; 배문조, 2007) 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도 20대와 30대를 포함하고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대상(강경수, 2005)으로 했던 데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임의표집이 아닌 눈덩이 표집방법을 이용하여 40대와 50대의 평균 고졸 학력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대상의 표집방법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은퇴를 ‘휴식’, ‘새로운 출발’ 혹은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 모두 조사대상 비취업여성보다 취업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연속’ 은퇴 기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취업여성들에게 은퇴 전후의 삶은 큰 변화를 수반하는 반면, 비취업여성들에게 있어 은퇴 전후의 삶은 비교적 연속적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셋째, 조사대상 취업여성들에게서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준비 순으로 노후준비정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비취업여성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준비 순으로 준비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신체적 노후준비를 제외한 경제적·정서적·사회적 영역에서 취업여성이 비취업여성보다 노후준비를 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여성들은 스스로 경제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후준비를 함으로써 경제적 노후준비에 주력하는 반면, 비취업여성들은 스스로의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노후준비보다는 그 이외의 노후준비, 특히 신체적 노후준비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은퇴기대에 따른 집단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휴식’, ‘새로운 출발’, ‘삶의 연속’, ‘강요된 좌절’ 은퇴기대 수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상, 중, 하의 세 개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특성을 비교한 결과, 본인 월소득에서 ‘휴식’ 은퇴기대 하위집단별로 상집단은

고소득자가 많고, 하집단은 고소득자 비율이 낮았으며, 경제적·정서적 노후준비는 상, 중, 하 집단의 순으로, 신체적 노후준비는 상과 중 집단이 하집단보다 높게, 사회적 노후준비는 상집단이 중이나 하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출발 은퇴기대 하위집단별로는 상집단에 취업여성 비율이 높고, 고학력자와 고소득자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신체적 노후준비도는 상과 중집단이 하집단보다 높았고, 정서적·사회적 노후준비도는 상, 중, 하 집단 순으로 높았다. '강요된 좌절' 은퇴기대 집단별로는 상집단이 취업자 비율이 높고,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고학력자와 본인 고소득자 비율이 높았고, 중집단이 고소득 배우자 비율이 높았다. 경제적 노후준비도는 상, 중, 하 집단 순이었고, 정서적 노후준비도는 상집단이 중과 하집단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중년기 여성들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외부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하는 '강요된 좌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아직까지 법적 정년제 등으로 인하여 은퇴의 자발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은퇴 후 성공적인 노후생활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상담 등의 다양한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를 앞둔 중년들, 특히 남성들보다 더 긴 노후를 보내야 하는 중년기 여성들이 자신이나 배우자의 은퇴를 앞두고 체계적으로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은퇴는 비취업여성들에게보다 취업여성들에게 '삶의 연속'보다는 '휴식', '새로운 출발', '강요된 좌절' 등 변화를 수반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결국 비취업여성들에게 은퇴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할 뿐 아니라 퇴직이라는 명시적인 사건의 부재로 인하여 실제적인 체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비취업여성에게 있어서도 은퇴 후 노후의 삶은 가계소득의 감소,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및 가족내 역할 변화 등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즉, 노후에 대한 준비는 취업여부와 무관하게 중년기 여성들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여성들은 직장 내의 공식적인 활동이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은퇴나 은퇴 이후 삶의 의미나 노후설계의 필요성을 자주 논의하고 접하게 되는 반면, 비취업여성의 경우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향후 은퇴준비 교육이나 은퇴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비취업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취업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노후준비 면에서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배우자 없이 홀로 남겨질 경우 노후 경제적 문제가 더 크게 우려되는 만큼 재취업이나 노후 자산관리 등 비취업여성들의 경제적 노후준비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년기 취업남성들은 은퇴를 '새로운 출발로 기대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던 데 (오병철, 2012) 반해 본 연구에서 중년기 취업여성들은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기대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물론 시기나 연구방법 그리고 표집절차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이 두 연구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데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은퇴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어려움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기존의 노후 및 은퇴 준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남성 대상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여성들의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제한적인 지역에서 비확률적 방법을 통하여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표집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 전체의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전국 표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들의 취업 여부 비율에 맞춰 유층화 표집을 통하여 조사 대상을 선별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성별, 직업, 교육수준, 거주지역, 생활수준 등 다양한 집단별 비교를 통하여 보다 풍부한 자료를 보충함으로써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노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중년기 여성들의 취업여부에 따른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은퇴기대나 각 영역별 노후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밝히는 것은 후속 연구로 미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조작적으로 잘 정의된 변인을 조사하여 은퇴기대와 노후준비도의 영향요인들과 각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남은 한서대학교에서 노년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서대학교에서 노년학과 노인복지 관련 강의를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베이비붐 세대 특히 여성들의 노후준비다. (E-mail: lenanam@hanmail.net)

한정란은 연세대학교에서 '노인교육 교육과정 개발 실천 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교육, 노인에 대한 태도, 세대공동체, 노후준비 등이다. (E-mail: hjr@hanseo.ac.kr)

참고문헌

- 강경립(2004). 자원봉사활동이 중년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정책과학대학원, 동아대학교, 부산.
- 강경수(2005). 여성교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사회 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정보산업대학원, 한서대학교, 충남.
- 강영숙(2005). 고령화 사회 중, 장년층 여성의 노후준비 의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행정대학원, 건국대학교, 서울.
- 고정옥, 김정숙(2009). 중년여성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노후생활 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5(3), pp.17-39.
- 공선희(2010).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건강증진생활양식과 성공적인 노화인식 및 노후 대책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임상간호정보대학원, 한양대학교, 서울.
- 김나연, 김성희, 정은하(2007). 남성노인의 은퇴 후 삶의 과정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 :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한국가족복지학, 21, pp.253-288.
- 김백수, 이정화(2010).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분석: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1(3), pp.411-425.
- 김수현(2009). 직장인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공주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공주대학교, 충남.
- 김양이, 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pp.55-82.
- 김여진, 홍환(2009). 중, 고령 전업주부와 취업여성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 조사연구, 21, pp.93-118.
- 김윤정, 강인, 이창식(2004). 청년·중년·노년 세대별 노인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pp.65-75.
- 김인숙(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행정대학원, 경희대학교
- 김정수(2009). 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 강원도 양양군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강원대학교, 강원도.
- 김정임(2009). 20대 청년층의 노후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
- 김주성, 최수일(2010). 라이프스타일이 노후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

- 복지학, 15(3), pp.97-119.
- 김주희, 이기영, 최현자(2009). 은퇴자의 은퇴 이후 생활수준 변화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pp.73-93.
- 김현미, 최연희(2010). 생산직 근로자의 연령별 노후준비와 영향요인.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9(2), pp.117-127.
- 김혜진(2012).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제도 인지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2, pp.53-80.
- 김희정(2010). 청·장년층의 노후 준비의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대학원, 동아대학교, 부산.
- 나지나, 백승애, 신은경, 김미혜(2010). 결혼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pp.29-54.
- 문숙재, 여윤경(2001).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중산층가계의 은퇴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pp.129-155.
- 박경미(2013). 중년여성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 성공적인 노년인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간호학과, 아주대학교, 경기.
- 박주선(2007). 장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의식 및 대책. 서울시에 거주하는 30, 40대 직장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대학원, 가톨릭대학교, 경기.
-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pp.275-297.
- 박효영(2009). 청·장년층 직장인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동대문구 직장인 중심, 경제적 준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행정대학원, 경희대학교, 서울.
- 배계희(1988). 중년기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교육대학원, 동국대학교, 서울.
- 배문조, 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7), pp.89-102.
- 배문조(2007). 직장인의 은퇴기대가 은퇴준비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pp.145-158.
-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pp.1107-1122.
- 배문조(2011). 중년기의 성공적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의식이 노후생활

-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pp.45-61.
- 배재덕(2014). 중년층의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과 은퇴태도가 은퇴준비에 미치는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서울.
- 백영의(2007). 직업교육에 참여한 준 고령 여성들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성말순(2004). 중년 여성의 노후생활 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서울.
- 성미애, 옥선화(2004). 여성 퇴직자의 퇴직 후 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교직·공무원직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지, 16(2), pp.55-91.
- 신승희(2010).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대학원, 경성대학교, 부산.
- 신은식(2002). 독신미혼여성의 노후관련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행정대학원, 건국대학교, 서울.
- 안현선, 김효민, 안진경, 김양희(2009).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도와 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pp.137-155.
- 오경숙(2013). 베이비붐세대 여성의 노후생활인식 및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광운대학교, 서울.
- 오병철(2012). 베이비붐 세대 남성 직장인들의 퇴직 태도, 노후준비, 노년기 사회참여 의향. 박사학위논문, 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충남.
- 우해봉(2010). 여성 무소득 배우자의 노후 준비 현황과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37(1), pp.311-338.
- 이복희(2006). 중년기 여성의 노후준비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서울.
-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2009년 1월호, pp.72-80.
- 이승아, 한경혜(1998). 중년기 직장 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 계획. 대한가족학회지, 36(5), pp.125-135.
- 이여봉(2010). 중년여성의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베이비붐 세대와 이전세대. 한국가족학회지, 24(1), pp.31-70.

- 이연호(2007). 고령화 사회의 노후대책과 노인복지 서비스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행정대학원, 한양대학교, 서울.
- 이영주(2010). 중년기 부부의 노후준비도와 노화불안. 석사학위논문, 노인복지학과, 한서대학교, 충남.
- 이정화(2009). 광주, 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pp.275-289.
- 이준우, 이현아, 황준호(2011). 한국 노인의 노후생활에 관한 인식. 한국노년학, 31(3), pp.711-732.
-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정관리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전귀연, 배문조(2010).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pp.13-24.
- 정애리 (2007).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목포대학교, 전남.
- 조미영(2006). 중년층의 노후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과 자립형 노인 커뮤니티 입주의사. 석사학위논문, 가정교육학과, 한국교원대학교, 충북.
- 조성남(2004). 에이지 붐시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조원경, 한정란(2009). 중년기 직장 남성의 직업에 대한 태도: 공무원과 일반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연구, 28(1), pp.43-61.
- 조추용(2004). 노인이 가족에게 기대하는 부양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pp.71-99.
- 조추용, 송미영, 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pp.135-156.
- 조혜영(2004). 도시거주 전업주부와 취업여성들의 노후 대책에 대한 의식비교: 청주시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건국대학교, 서울.
- 주재선, 이채정(2008). 한국여성의 지위, 어제와 오늘.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가영, 조임현, 이의훈(2001). 노년기근로자의 퇴직현상에 관한 심층적 연구. 한국노년학, 21(1), pp.73-92.
- 통계청(2006). 2006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 통계청(2011). *제 4차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노후준비실태*.
- 한정란, 안경실, 오병철(2010). 중년 직장 남성의 직업 및 퇴직에 대한 태도. *한국노년학*, 30(2), pp.599-613.
- 홍석태, 양해술(2008).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5), pp.287-299.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 Norton.
- Gee, S., Baillie, J. (1999). Happily ever after? An exploration of retirement expect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5(2), pp.109-128.
- Hanson, K., Wapner, S. (1994). Transition To Retirement: Gender Differ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9(3), pp.189-207.
- Hornstein, G. A., Wapner, S.(1985). Modes of Experiencing and Adapting to Reti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1(4), pp.291-315.
- Lynn L. Gigy (1985). Preretired And Retired Women's Attitudes Toward Reti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2(1), pp.31-44.
- Olakunle, A. Ogunbameru, Sina Bamiwuye (2004). Attitudes toward retirement and preretirement education among Nigerian bank workers. *Educational Gerontology*, 30(5), pp.391-401.
- Richard A. Settersten, J. R.(1998). Time, Age, And The Transition To Retirement: New Evidence On Life-Course Flexibility. *International J.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7(3), pp.177-203.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in Middle Age

Lee, Nam

(Hanseu University)

Han, Jung Ran

(Hanse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xpectation and preparation for retirement of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in middle age. We survey 328 women in total aged from 40 to 59 (200 employed and 128 unemployed women). The instruments consist of the Retirement Expectation Inventory from Hornstein & Wapner (1985) and the questions on economic, emotional, physical, and so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① The 'imposed disruption' is the highest retirement expectation both in employed and unemployed women. ② For 'rest', 'new beginning', and 'imposed disruption', employed women show higher retirement expectation than unemployed women.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for 'continuation'. ③ Employed women show the highest economic retirement preparation, followed by emotional, social, and physical, while unemployed women show physical, emotional, social, and economic in order. And employed women are better preparing for their retirement in economic, emotional, and social area than unemployed women.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in physical retirement preparation. ④ The subgroups that expect retirement more as 'rest', 'new beginning', or 'imposed disruption' are mostly well-prepared for retirement, and composed mainly of employed, highly-educated, and high-income. Finally, we suggest the provision of various welfare services and education programs for middle-aged women, in particular for unemployed women with relatively insufficient opportunities of pre-retirement education or planning service.

Keywords: Retirement, Retirement Expectation, Preparation for Retirement, Middle Age